

『韓國語教育研究』(第2号) 別刷

ISSN 2186-2044

【寄稿論文】

르어간 활용시의 음운탈락 현상의 규칙화

姜 奉植

日本韓國語教育学会

2012年9月

ㄹ어간 활용시의 음운탈락 현상의 규칙화

姜 奉植

ㄹ어간은, 활용時に語幹末音ㄹが脱落したり、あるいは連結語尾頭音ㄹ이脱落したり、さらにはㄹとㅇの両方が脱落したりする、一見してとても複雑な音韻脱落の様相を呈している用言である。本稿では、ㄹ어간의音韻脱落に関するこれまでの韓日間の諸説を吟味し直し、音韻脱落現象については韓国語音韻論に基づき、慎重な考察を行った。その結果、韓国語音韻論に支持される、ㄹ어간의音韻脱落現象の規則化を明らかにしたのである。

목차

- 1 ㄹ어간 활용시의 음운탈락 현상
- 2 음운탈락 현상에 관한 한일간의 제설
 - 2-1 한국에 있어서의 제설
 - 2-1-1 한글 맞춤법 통일안(1933)
 - 2-1-2 한글 맞춤법(1988)
 - 2-1-3 任瑚彬·洪璟杓·張淑仁 (1989) , 임호빈·홍경표·장숙인(1997)
 - 2-1-4 한국어문화연수부(1991년, 고려대학교)
 - 2-1-5 김중섭·조현용·방성원·홍윤기·호정은(2001)
 - 2-2 일본에 있어서의 제설
 - 2-2-1 石原六三·青山秀夫(1963)
 - 2-2-2 柳尚熙·吳英元(1985)
 - 2-2-3 塚本勲·奥田一廣(1989)
 - 2-2-4 野間秀樹(2002)
 - 2-2-5 生越直樹·根本理恵(2006)
 - 2-2-6 梅田博之(1985), 梅田博之·金東俊(1989), 梅田博之(1991)(2006)
 - 2-2-7 姜奉植(1995)(1996)(2009)
- 3 음운탈락 현상의 규칙화

1. ㄹ어간 활용시의 음운탈락 현상

어간말음이 ㄹ로 끝나는 용언 즉 ㄹ어간은 활용시에 아래와 같이 어간말음이 ㄹ이 탈락하거나, 또는 으어미가 올때에는 으가 탈락하는 경우와 르(어간말음 ㄹ과 으가 합친 형태)가 탈락하는 두가지 경우가 있다.

(1) 어간말음 ㄹ탈락

놀-는 사람>노는 사람 멀-네>머네

자음 ㄴ으로 시작되는 어미 앞에서 ㄹ이 탈락하는 경우이다.

(2) 으탈락

놀-으러>놀러 멀-으면>멀면

으어미 연결시 으가 탈락하는 경우이다.

(3) 르탈락

놀-을까>노[르]¹ㄹ까>노르까>놀까

멀-을 때>머[르]ㄹ 때>머ㄹ 때>멀 때

으어미 연결시 르가 탈락하는 경우이다.

2. 음운탈락 현상에 관한 한일간의 제설

2-1 한국에 있어서의 제설

2-1-1 한글 맞춤법 통일안(1933)²

ㄹ어간 음운탈락에 관한 규정을 최초로 언급한 문헌은 해방 전 조선어학회에서 제정한 “한글 맞춤법 통일안”이라 하겠다.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서는 ㄹ어간을 변격용언으로 취급하여 다음과 같이 ㄹ탈락현상을 설명하고 있다.

¹ []는 음성기호로 연음된 발음을 표시한다. 이하 동.

² 『한글 맞춤법 통일안』 朝鮮語學會, 1933년

제 4 절 변격 용언

제 10 항 다음과 같은 변격 용언을 인정하고, 각각 그 특유한 변칙을 좇아서 어간과 어미가 변함을 인정하고 변한대로 적는다.

1. 어간의 끝 ㄹ이 ㄴ, ㅂ과 '오' 앞에서 주는 말

예: (1) ㄴ 앞에서

울다 우나 우니

길다 기나 기니

(2) ㅂ 앞에서

놀다 놀니다

갈다 갑니다

(3) 오 앞에서

놀다 노오니

갈다 가오니

[부기] ㄹ ㄷ ㅅ ㅈ 앞에서도 주는 일이 있지만은 안 주는 것으로 원칙을 삼되, 존경의 '시'와 미래의 ㄹ 앞에서는 도모지 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예: 놀다(遊) 노시다 놀 사람

알다(知) 아시다 알 사람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서 발췌)

요약해 말하면, ㄹ어간의 ㄹ이 탈락하는 것은 ㄴ, ㅂ, 오 앞에서하고 존경의 ‘시’와 미래의 ㄹ앞에서라는 것이다. 이 규정은 이후 ㄹ어간 활용을 설명하는데 있어 하나의 큰 규범이 되었다고 하겠다.

2-1-2 한글 맞춤법(1988)³

1988년 1월 19일 문교부가 새로 개정 고시하여 1989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한 현행 어문 규정이다. 이 규정에서는 ㄹ어간의 ㄹ탈락에 관해 아래와 같이 설명을 하고 있다.

³ 문교부에서 1988년 1월 19일 개정판을 고시. 198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 현행 규정.

제18항 다음과 같은 용언들은 어미가 바뀔 경우, 그 어간이나 어미가 원칙에 벗어나면 벗어나는 대로 적는다.

1. 어간의 끝 ‘ㄹ’이 줄어들 적

- 갈다 : 가니 간 갑니다 가시다 가오
- 놀다 : 노니 논 놉니다 노시다 노오
- 불다 : 부니 분 불니다 부시다 부오
- 등글다 : 등그니 등근 등급니다 등그시다 등그오
- 어질다 : 어지니 어진 어집니다 어지시다 어지오

[붙임] 다음과 같은 말에서도 ‘ㄹ’이 준 대로 적는다.

- 마지 못하다 마지 않다 (하)다마다 (하)자마자
- (하)지 마라 (하)지 마(아)

해설

1. 어간 끝 받침 ‘ㄹ’이 어미의 첫소리 ‘ㄴ, ㅂ, ㅅ’ 및 ‘-(으)오, -(으)르’ 앞에서 줄어드는 경우, 준 대로 적는다.

- 살다 - (살네) 사네 (살세) 사세 (살으오) 사오 (살을수록) 살수록
- 빌다 - (빌네) 비네 (빌세) 비세 (빌으오) 비오 (빌읍시다) 빌시다
- (빌을뿐더러) 빌뿐더러

어간 끝 받침이 ‘ㄹ’인 용언은 모두 이에 해당한다.

[붙임]

어간 끝 받침 ‘ㄹ’은 ‘ㄷ, ㅈ, 아’ 앞에서 줄지 않는 게 원칙인데, 관용상 ‘ㄹ’이 줄어진 형태가 굳어져 쓰이는 것은 준 대로 적는다.

- (-다 말다) -다마다 (말지 못하다) 마지 못하다 (멀지 않아) 머지 않아
- (-자 말자) -자마자 (-지 말아) -지 마(아) (-지 말아라) -지 마라

‘(-지 말아라)→-지 마라’의 경우는, 어간 끝 받침 ‘ㄹ’과 어미의 ‘아’가 함께 줄어드는 형태인데, 이른바 문어체(文語體) 명령형이나 간접 인용법의 형식에서는 ‘말라’가 사용된다.

(가지 말아라) 가지 말라. 읽지 말라고 하였다.

한편, ‘-다마다’는 사전에 따라 ‘-고말고’의 방언으로 다루어지기도 하였으나, 표준어로 인정한 것이다. (표준어 규정 제 26항 참조.)

(“한글 맞춤법”에서 발췌)

제18항에서는 ‘...벗어나면 벗어나는 대로 적는다.’라고 기술하고 있고, 해설 1.에서는 ‘...줄어지는 경우, 준 대로 적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즉 ‘ㄴ, ㅂ, ㅅ’ 및 ‘-(으)오, -(으)르’ 앞에서 ㄹ이 탈락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고 하겠다.

2-1-1의 “한글 맞춤법 통일안”과 비교하면 두 가지점에서 차이가 보이는데, 하나는 탈락한다는 단정성이 “한글 맞춤법”에서는 좀 약화된 감이 있고, 또 하나는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서는 ‘존경의 ‘시’ 앞에서 탈락한다’는 제한적인 탈락이 “한글 맞춤법”에서는 ‘ㅅ 앞에서’로 그 탈락범위가 넓어진 점이라 하겠다.

2-1-3 任珣彬·洪璟杓·張淑仁(1989)⁴, 임호빈·홍경표·장숙인(1997)⁵

ㄹ어간은 종전에는 불규칙동사로 간주되었으나 최근에는 탈락현상으로 처리되고 있다고 하면서 ㄹ어간은 활용시 매개모음 으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ㄹ탈락에 관해서는 ‘ㄴ, ㅂ, ㅅ’ 앞에서 ㄹ이 탈락한다고 한다

2-1-4 한국어문화연수부(1991년, 고려대학교)⁶

⁴ 任珣彬·洪璟杓·張淑仁 (1989) p.175

‘ㄹ’動詞

ㄹ終聲で終わる動詞はㄴ、ㅂ、ㅅの前でㄹが脱落する。

알다 (知っている) : 압니다, 아세요, 아는

(상기 용례는 편집상 필자가 원래 레이아웃에 일부 수정을 가했다. 이하 용례 생략)

⁵ 임호빈·홍경표·장숙인(1997)(p.76에서 발췌)

ㄹ동사는 활용시 어간의 끝소리 ‘ㄹ’이 ‘ㄴ, ㅂ, ㅅ’ 앞에서 탈락되어 종전에는 불규칙동사로 간주되었으나, 요즈음은 탈락현상으로 처리되고 있다. 그러나 활용할 때 ‘ㄹ’이 규칙적으로 탈락되므로 ...

‘ㄹ’탈락현상 (P.81에서 발췌)

자음으로 끝나는 어간은 매개모음 ‘으’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으나 ‘ㄹ’자음은 ‘으’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어간의 끝소리 ‘ㄹ’이 ‘ㄴ, ㅂ, ㅅ’ 앞에서 탈락된다.

알다 (知っている) : 압니다, 아세요, 아는

(상기 용례는 편집상 필자가 원래 레이아웃에 일부 수정을 가했다. 이하 용례 생략)

⁶ 한국어문화연수부 (1991) p.15

ㄹ不規則

ㄹの後にㄴ、ㅂ、ㅅ、오가くる時はㄹが脱落する。ところが、ㄹは母音と同じような性格を持

ㄹ어간을 ㄹ불규칙으로 다루고 있으며, ㄹ어간 다음에 ‘ㄴ, ㅂ, ㅅ, ㅇ’가 오면 ㄹ이 탈락한다고 한다. 그리고 ㄹ은 모음과 같은 성격을 갖고 있어서 ㄹ어간은 활용시에 항상 모음어간에 붙는 활용어미 들과 연결된다고 한다.

2-1-5 김중섭·조현용·방성원·홍윤기·호정은(2001)⁷

ㄹ어간을 ㄹ탈락동사라 하며, ㄹ어간이 ‘ㄴ, ㅂ, ㅅ’으로 시작되는 어미에 연결될 때 ㄹ은 반모음으로 인식되어 모음어간 연결어미가 온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도 ‘-(으)오’와 ‘-(으)ㄹ’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

2-2 일본에 있어서의 제설

2-2-1 石原六三·青山秀夫(1963)⁸

해방 후 일본에서 조선어학의 권위였던 河野六郎가 감수한 『朝鮮語四週間』에서는 ㄹ어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고 있다.

ㄹ변

어간말에 자음 ㄹ[l]이 있는 용언에 ㄴ·ㅅ·ㅂ·ㅇ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올 경우에는 어간말자음 ㄹ이 탈락한다.

예) 놀다: 노는 사람(遊ぶ人), 노세(遊ぼう), 놀시다(遊びましょう), 노오(遊びます)

っているので語幹末音ㄹを持つ語は他の子音末音を持つ語と違い、常に母音の後に続く接辞と結合する。

⁷ 김중섭·조현용·방성원·홍윤기·호정은 (2001) p.188

‘ㄹ’脱落動詞

‘ㄹ’のある動詞がㄴ、ㅂ、ㅅで始まる語尾につながる時、‘ㄹ’は半母音として認識され、母音の後ろにつながる語尾につく。

⁸ 石原六三·青山秀夫(1963) pp.70-71

ㄹ變 (편집상 필자가 원래 레이아웃에 일부 수정을 가했다.)

語幹末に子音ㄹ[l]がある用言にㄴ・ㅅ・ㅂ・ㅇで始まる語尾が付く場合には語幹末子音ㄹ가脱落する。

놀다: 노는사람(遊ぶ人), 노세(遊ぼう), 놀시다(遊びましょう), 노오(遊びます)

語幹末子音がㄹである用言はすべてㄹ變に該当する。若干の例を示せば次の通りである。

깎다 敷く、・・・ (이하 용례는 생략)

어간말 자음이 ㄹ인 용언은 다 ㄹ변에 해당한다. 약간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깎다 敷く、・・・ (이하생략. 편집상 필자가 원래 레이아웃에 일부 수정을 가했다.)

ㄹ탈락이 존경형 ‘시’ 앞에서가 아니고 ㅅ 앞에서라고 한 점을 보면 “한글 맞춤법 통일안”보다는 진전된 설명이라 하겠다. 그러나 “한글 맞춤법 통일안” 부기에서는 ‘미래의 ㄹ’ 앞에서는 탈락한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그 언급이 없다.

2-2-2 柳尚熙・吳英元(1985)⁹

불규칙용언을 불규칙동사와 불규칙형용사로 나누어 설명을 하고 있다. ㄹ불규칙동사와 ㄹ불규칙형용사에 있어서 ㄹ이 탈락하지 않는 예를 들어가면서 ㄹ이 탈락하는 경우는 ‘ㄴ·ㅂ·ㅅ·오’앞에서라고 하고 있다. 기본적으로는 石原六三・青山秀夫(1963)과 맥락을 같이 하는 설명이라 하겠다.

2-2-3 塚本勲・奥田一廣(1989)¹⁰

ㄹ탈락을 탈락이행형 (ㄹ→ㅇ) 또는 ㄹ변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ㄹ어간에 ‘ㄴ·ㅅ·오·ㅂ’이 오면 ㄹ받침이 탈락하고, 그로 인해 ㄹ어간이 모음어간이 되어

⁹ 柳尚熙・吳英元(1985)p.185, p.188

ㄹ不規則動詞 (하기 용례를 제시. 편집상 필자가 원래 레이아웃에 일부 수정을 가했다.)

날다, 날고, 날아, 날면, 날려 (語末子音ㄹが消えない。)

나니, 나는, 나세, 납니다, 나오 (語末子音がㄴ・ㅂ・ㅅ・오の前で消える。)

(이하 용례는 생략)

ㄹ不規則形容詞 (하기 용례를 제시. 편집상 필자가 원래 레이아웃에 일부 수정을 가했다.)

길다, 길고, 길어, 길면, 길지 (語末子音ㄹが消えない。)

긴, 기나, 기니, 갑니다, 기오, 기시니 (語末子音がㄴ, ㅂ, ㅅ, 오の前で消える。)

(이하 용례는 생략)

¹⁰ 塚本勲・奥田一廣(1989)pp.112-113

脱落移行型 (ㄹ→ㅇ) <ㄹ變>

ㄹパッチムで終わる語幹にㄴ・ㅅ・오・ㅂがつくと、ㄹパッチムが無くなりパッチムのない接続になる。

[図解9](편집상 필자가 원래 레이아웃에 일부 수정을 가했다.)

놀다 (遊ぶ) →놀+ㅂ니다→노+ㅂ니다→닙니다 (遊びます)

(이하 용례는 본문에서 발췌)

날다→나는 새, 팔다→파셨습니다, 달다→단맛

어미와 연결된다고 설명한다.

이 설명도 기본적으로는 石原六三・青山秀夫(1963)과 柳尚熙・吳英元(1985)와 같은 맥락의 설명이라 하겠다.

2-2-4 野間秀樹(2002)¹¹

‘어기’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野間秀樹는 ㄹ어간의 활용에 관해서 제Ⅱ어기에는 ㄹ이 탈락하지 않는 형과 탈락하는 형의 두가지가 있다고 한다. 이 두가지 형은 연결어미의 첫소리로 대개 결정되는데, ㄹ이 탈락하는 첫소리로는 ‘ㅅ, ㄷ, ㅂ, ㅇ, ㄴ’이 있으며, 이 외(Ⅱ-면 등)에는 탈락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면서 제Ⅰ어기와 제Ⅲ어기에 연결되는 어미는 이 첫소리 들과는 무관하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제Ⅰ어기에 ‘-나, -니, -네’ 등의 첫소리 ㄴ이 올 경우에 ㄹ이 탈락하는 점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

또한 제Ⅱ어기에 있어서 ‘-러, 려고, 리라’ 등의 첫소리 ㄹ이 올 경우에도

¹¹ 野間秀樹(2002) pp.128-129

≒活用の用言

알다 (知る, わかる) や 멀다 (遠い) のように、辞書形の語幹が≒[리울]で終わる用言は、第Ⅱ語基で≒が落ちない形と落ちた形の2通りがある。第Ⅱ語基のこの2つの形は、後ろにつく語尾によって使い分ける。第Ⅲ語基は通常の作り方通り、最後の母音が陽母音であればㅂをつけ、それ以外は어をつける。≒語幹の用言は、例外なく規則的にこうなる。この型の活用を≒活用と呼ぶ：

	I	II	III
알다 (知る, わかる)	알-	알-/아-	알아-
멀다 (遠い)	멀-	멀-/머-	멀어-

第Ⅱ語基のこの2つの形は、後ろにつく語尾の最初の音で概ね決まっている。第Ⅰ語基や第Ⅲ語基につく語尾にはこのことは関わりない：

≒が落ちた第Ⅱ語基につく語尾 = ㅅ, ㅃ, ㅍ, ㅇ, ㄴで始まる語尾
II-세요, II-습니다, II-ㅂ니다 など
≒が落ちない第Ⅱ語基につく語尾 = 上記以外の音で始まる語尾
II-면 など

≒活用の用言을 합니다体と해요体にしてみよう。합니다体の語尾にはⅠ-습니다とⅡ-ㅂ니다の2種類があり、子音語幹にはⅠ-습니다を用い、母音語幹にはⅡ-ㅂ니다を用いたが、≒語幹も母音語幹同様、Ⅱ-ㅂ니다を用いる：

		합니다体 (Ⅱ-ㅂ니다)	해요体 (Ⅲ-요)
알다 (知る, わかる)	知っています	압니다	알아요
멀다 (遠い)	遠いです	멀니다	멀어요

(이하 용례는 생략)

ㄹ이 탈락하지 않는데, 위에서 언급한 탈락하는 첫소리 ㄹ과 탈락하지 않는 첫소리 ㄹ에 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 설명이 애매하다고 하겠다.

2-2-5 生越直樹・根本理恵(2006)¹²

ㄹ어간은 ①(자음으로 끝나는 어간임에도 불구하고) 어미는 모음어간에 연결되는 형태가 온다고 설명하면서 하기의 예를 들고 있다.

면/으면 은 ‘면’이, 시/으시 는 ‘시’가, ㅂ니다/습니다 는 ‘ㅂ니다’가 온다.

그리고 ②‘ㄴ, ㅅ, ㅂ, 종성ㄹ’로 시작되는 어미가 오면 ㄹ이 탈락한다 면서 다음과 같은 주의를 달고있다.

* 주의 : 초성 ㄹ로 시작하는 어미가 올 때에는 어간말 ㄹ은 탈락하지 않음.

알+ 려고→알려고

본 설명은 ‘오’가 옛스러워서인지 ‘오’는 다루지 않고 있다.

①에서는 ㄹ어간에는 -면 -시 -ㅂ니다가 연결된다고 하지만, -시 -ㅂ니다의 경우에는 ㄹ이 탈락하고, -면의 경우에는 ㄹ이 탈락하지 않는데 이점을 구분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②에서는 어간말 ㄹ이 탈락하지 않는 경우를 ‘주의’에서 초성 ㄹ이 올 때라고 하고 있는데, ㄹ이 탈락하지 않는 ‘-면 등(-면서, -며’ 앞에서도 탈락하지 않음.)’이 있으므로 이 설명은 정리가 불충분하다고 하겠다.

또한 ①의 설명은 거의가 으어미가 올 때의 현상인데, ②에서 ㅅ을 다루고

¹² 生越直樹・根本理恵(2006)pp.51-52

≡語幹の用言の特徴

- 1) (子音終わりの語幹であるにもかかわらず) 語尾は母音語幹用の形がつく。
 たとえば, 면/으면 (～れば<仮定・条件>43参照) は母音語幹に付く면, 시/으시 (～れる・られる<尊敬>) は시, ㅂ니다/ㅂ니다 (～ます) はㅂ니다が付く。
 (이하 용례는 생략)

- 2) ㄴ, ㅅ, ㅂ, 終聲≡で始まる語尾が続くとき, 語幹末の終聲≡が脱落する。
 (이하 편집상 필자가 원래 레이아웃에 일부 수정을 가했다.)

살다 :

사는 사람 (住んでいる人, 現在連体形) 사세요? (お住まいですか)

살니다 (住んでいます) 살 집 (住む(予定の)家, 未来連体形)

*注意 : 初声の≡で始まる語尾が続くときは, 語幹末の≡が脱落しない。

알+려고 (～ようと) →알려고 (知ろうと)

있다. 현대어에서는 π 으로 시작되는 어미는 ‘-(으)시, -(으)세요, -(으)십시오’ 등등의 ‘-으’로 시작되는 으어미가 거의 대부분이다. 즉 π 으로 시작되는 어미와 으어미를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왜 나누어 설명하는지에 관한 언급이 없다.

2-2-6 梅田博之(1985), 梅田博之・金東俊(1989), 梅田博之(1991)(2006)

한국어학의 권위인 梅田博之(1985)¹³는 π 어간에 관해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고 있다.

π 어간

드세요는 어간 ‘들-에 ‘-으세요’가 와서 어간말 π 이 탈락해 ‘드세요’가 된 것이다. 어간이 π 로 끝나는 용언은 활용이 다른 용언과 다르다.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잘 사용하는 ‘놀다’를 예로 들어 설명하겠다.

① π 및 π 이외의 자음어미와 ‘-어’어미가 오는 경우에는 어간말의 π 은 탈락하지 않는다.

놀다(원형), 놀고(병렬접속형), 놀죠(강조종결어미가 붙은 형태),

놀아요(약대존대형), 놀아서(연용형), 놀았어요(과거형)

¹³ 梅田博之(1985)

≡語幹

드세요≡《召し上がれ》は語幹들-に-으세요가付き語幹末の≡が落ちて드세요という形になっているのです。語幹が≡で終わる用言は活用が他の用言と違います。ここではもっと一般的によく使われる놀다≡《遊ぶ》を例にとりて説明します。

① π および π 以外の子音語尾と어語尾が付く場合には、語幹末の≡は保たれる。

놀다(原形)、놀고(並列接続形)、놀죠(強めの終止語尾が付いた形)、

놀아요(略待丁寧形)、놀아서(連用形)、놀았어요(過去形)

② π および π で始まる語尾が付くと語幹末音の≡が脱落する：놀+ π →놀는(現在連体形)、

놀+ π 다→놀다(引用文の術語形)、놀+ π 세→놀세(等称の勧誘形[未出])

③ 어語尾が付くと어가脱落する(この点、≡語幹は母音語幹と同じ)：놀+ π 으면→놀면《遊ぶならば》、놀+ π 으러→놀러《遊びに》。なお、어語尾の어가落ちた結果、

④ 語幹末音の어の後に π 、 π が直接つくことになれば、さらに어も脱落する(つまり、上

記②が適用される)：놀+ π 으니까→놀+ π 니까→놀니까《遊ぶので》、

놀+ π 으세요→놀+ π 세요→놀세요(敬語の略待丁寧形)

⑤ 発音不能の形(音韻体系として許されない形)になれば어が脱落する。

例：놀+ π 을→놀+ π 어→놀(未来連体形)、놀+ π 은→놀+ π 어→놀(過去連体形)、

놀+ π 읍니다→놀+ π 비니다→놀비니다(上称平叙形)

注：上称語尾は母音語幹に付く場合には-비니다という形だとしてきましたが、これからは-읍니다というように考えてください。例えば、가+ π 비니다(어脱落)→갑니다のように

(이하 용례는 생략)

②ㄴ 및 ㅅ으로 시작되는 어미가 오면 어간말음 ㄹ이 탈락한다.

놀-+-는→노는(현재연체형), 놀-+-ㄴ다→논다(인용문의 술어형),

놀-+-세→노세(등칭권유형)

③‘-으’어미가 오면 ‘으’가 탈락한다(이점에 있어서 ㄹ어간은 모음어간과 동일).

놀-+-으면→놀면, 놀-+-으러→놀러, 이는 ‘-으’어미의 ‘으’가 탈락한 결과이다.

④어간말음 ㄹ다음에 ㄴ, ㅅ이 직접 오게 되면 ㄹ도 탈락한다.(상기②가 적용된다.)

놀-+-으니까→놀-+-니까→노니까,

놀-+-으세요→놀-+-세요→노세요(경어의 약대존대형)

⑤발음불능형(음운체계에서 허용되지 않는 형)이 될 때에는 ㄹ이 탈락한다.

놀-+-을→놀-+-르→놀(미래연체형), 놀-+-은→놀-+-ㄴ→논(과거연체형),

놀-+-읍니다→놀-+-ㅂ니다→놉니다(상칭평서형)

주 : 상칭어미는 모음어간에 연결될 경우에 ‘-ㅂ니다’라는 형태로 연결했었지만, 지금부터는 ‘-읍니다’로 연결하도록 한다. 예를 들면, 가-+-ㅂ니다(‘으’탈락)→갑니다

(이하 예문은 지면상 생략함)

梅田博之설명은 당시까지 나온 ㄹ어간에 관한 제 설명중에 가장 체계적으로 정리되었고 또한 음운론을 바탕으로 설명을 논리적으로 전개했다는 점에서 대단히 높이 평가된다고 하겠다.

단지, 필자가 의문을 가지는 곳이 두가지가 있다.

하나는, ③④의 용례 ‘놀-으니까/놀-으세요’에서 먼저 으가 탈락하고 뒤이어 ㄹ이 탈락한 것으로 봐야 하는가 하는 점이다. 강봉식(1996)에서 후설하지만, 필자는 ‘놀-으니까>노[르]니까>노니까/놀-으세요>노[르]세요>노세요’의 순으로 연음한 [르]가 탈락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하나는 ③⑤의 용례 ‘놀-읍니다’도 먼저 으가 탈락한 뒤에 발음불능으로 ㄹ탈락이 일어나 ‘놉니다’로 됐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에도 필자는 동의하기 어렵다. 필자는 이 또한 ‘놀-읍니다>노[르]ㅂ니다>놉니다’로 연음[르]의 탈락으로 보지, 발음불능으로 ‘놉니다’가 됐다고는 보지 않는다. 후에 梅田博之(2006)에서 이 용례는 삭제되었다.

梅田博之·金東俊(1989)은 지면상의 제약 때문인지 梅田博之(1985)의 설명 중에서 일부 용례를 삭제하고, 상기 ③⑤의 ‘주’도 삭제하고 있으나 기본적인

으로는 梅田博之(1985)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고 하겠다.

梅田博之(1991)도 梅田博之(1985)를 거의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여기서는 梅田博之·金東俊(1989)에서 삭제된 용례들을 원래 상태로 복원해 다시 신고 있다.

그러나, ③⑥에서는 梅田博之(1985)에 실었던 ‘주’는 다시 신지 않았고, 그대신 梅田博之(1985), 梅田博之·金東俊(1989)에서 실은 용례 ‘놀+-읍니다→놀+-버니다→놀니다’를 ‘놀+-버니다→놀니다’로 즉 ‘-읍니다’를 삭제하고 ‘-버니다’로 수정해 신고 있으나 여전히 발음불능으로 ㄹ탈락이 일어났다고 기술하고 있다.

梅田博之(2006)¹⁴도 梅田博之(1985)를 거의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그러나 설명“②ㄴ 및 ㅅ으로 시작되는 어미가 오면 어간말음 ㄹ이 탈락한다.”에서 梅田博之(1985)이래 계속(1989, 1991)해서 실어 오던 용례 ‘놀+-세→노세’가 삭제되고, 용례 ‘노는, 논다’만이 실려 있다. 이는 ㅅ으로 시작되는 어미가 현대어에 별로 나오지 않으므로 삭제한 것이 아닌가로 추측되는데, 필자의 추측이 맞는다면 ‘②ㄴ 및 ㅅ으로 시작되는...’설명에서 ‘ㅅ’을 삭제하든지 아니면 ‘-ㅅ’용례를 제시하지 않은 설명이 들어 있어야 할 것이다.

¹⁴ 梅田博之『NHK新版ハングル入門』NHK出版、2006年

ㄹ語幹

語幹がㄹで終わる用言は活用が他の用言と違います。ここでは、一般的によく使われる놀다「遊ぶ」を例にとって説明します。

1. ㄴ, ㅇ, ㅅ, ㅇ 이외の子音語尾と어語尾が付く場合には、語幹末のㄹは保たれる。
놀다 (原形)、놀고 (並列接続形)、놀죠 (強めの終止語尾が付いた形)、
놀아요 (略待丁寧形)、놀아서 (連用形)、놀았어요 (過去形)
2. ㄴ, ㅇ, ㅅ, ㅇ로 시작まる語尾が付くと、語幹末音のㄹが脱落する。
놀+-는→노는 (現在連体形)、놀+-ㄴ다→논다 (引用文の術語形)
3. ㅇ語尾が付くとㅇが脱落する (この点、ㄹ語幹は母音語幹と同じ)。
놀+-으면→놀면「遊ぶならば」、놀+-으러→놀러「遊びに」。なお、ㅇ語尾のㅇが落ちた結果。
 - a. 語幹末音のㄹの後にㄴ, ㅇが直接続くことになれば、さらにㄹも脱落する (つまり、上記2.が適用される)。
놀+-으니까→놀+-니까→노니까「遊ぶので」、놀+-으세요→놀+-세요→
노세요 (敬語の略待丁寧形)、놀+-은→놀+-ㄴ→논 (過去連体形)
 - b. 発音不能の形 (音韻体系として許されない形) になればㄹが脱落する。
놀+-을→놀+-ㄹ→놀 (未来連体形)、놀+-읍시다→놀+-버시다→놀시다 (勧誘形)

(이하 용례는 생략)

그리고 3-b에서는 梅田博之(1985,1989,1991)에서 계속 실어 오던 용례 ‘놀+-은→놀+-ㄴ→논(과거연체형)’이 3-a로 이동되어 있는데, 이는 원래부터 3-a에 들어갈 용례인데 착오로 3-b에 계속 실어온 것으로 생각된다.

3-b에서는 梅田博之(1991)에서 수정한 용례 ‘놀+-읍니다→놀+-ㅂ니다’가 삭제되었고, 그대신 ‘놀+-읍시다→놀+-ㅂ시다→놉시다’가 새로 추가되었다.

2-2-7 姜奉植(1995)(1996)(2009)

姜奉植(1995)에서는 ㄹ어간이 자음 ㄹ로 끝나는 자음어간임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모음어간에 연결되는 어미를 취하는 경우를 제시했다. 이 현상은 으어미에서 나타나는데 으 다음에 ㅁ 또는 ㄹ이 오는 경우가 그렇다 하겠다. 그러나 ‘-을’처럼 ㄹ이 받침으로 나타날 때는 모음어간 연결어미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같이 지적하고 있다.

모음어간 연결어미를 취하는 예 : -오면, -으면서, -으며, -으러, -으려고,
-으리라 이외에 ‘-으려~’로 시작하는 어미.

姜奉植(1996)은 姜奉植(1995)와 기본적으로는 같은 내용이나 설명이 분산되어 있었기에 이해를 쉽게 하도록 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한 곳에 모아 설명했다.

- ①ㄹ어간은 연체형 ‘-을’로 시작되는 어미가 오면 자음어간 연결어미(‘-을~’)를 취하는데, 이 때에는 ㄹ어간의 ㄹ받침이 연음되어 발음이 [를]로 되나 연음한 [르]는 탈락한다.
- ②ㄹ어간은 ㄴ앞에서 탈락한다.

姜奉植(2009)¹⁵에서는 앞의 姜奉植(1996)를 거의 그대로 답습하면서 다음과

¹⁵ 姜奉植(2009) 『なるほど! 韓国語 -文法と会話編-』 p.145

ㄹ어간은, 上記の「-으러」において母音語幹に付く「-러」を取りました。ㄹ어간은「-으語尾」を取る際、しばしば母音語幹の活用形語尾（「-으」の脱落した形）を取ることがありますが、これには下記のような規則性があります。

ㄹ어간은、「-으語尾」の「-으」に続く初声子音（「-으-子音~」）が、ㄹ어간の場合は、母音

같이 총괄적으로 용례를 정리해 제시하고 있다.

…ㄹ어간은 으어미에 연결될 때 모음어간 연결어미(‘으’가 탈락한 형태) 에 연결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는 다음과 같은 규칙성이 있다.

어어미의 ‘으’에 연결되는 초성자음이 ㄹ 또는 ㄹ인 경우에는 모음어간 연결어미에 연결된다. 「-으려고(~しようと, 제19과)」 「-으면(~ならば, 제18과)」 「-으면서(~しながら, 제18과)」 등이 그렇다. 예를 들면 ‘살다(住む)’는 다음과 같이 활용한다.

살-려고(住もうと) 살-면(住めば) 살-면서(住みながら)

그러나 ‘으’에 연결되는 초성자음이 (미래연체형 ‘-을’ 또는 ‘-을~’표현처럼) 종성 ㄹ인 경우에는 위의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을 것이다(~するつもりだ, 제21과)’ ‘-을게요(~します, 제21과)’ ‘-을까요(~しましょうか, 제19과)’ ‘-을 수 있다(~することがで

語幹の活用形語尾を取ります。「-으려고(～しようと、第19課)」「-으면(～ならば、当課)」「-으면서(～しながら、当課)」などがそうです。例えば、살다(住む)でいえば下記のようになります。

살-려고(住もうと) 살-면(住めば) 살-면서(住みながら)

しかし、「-으」に続く子音が、(未来連体形「-을」や「-을～」表現のように、)終声「-ㄹ」の場合はこの規則は適用されません。例えば、「-을 것이다(～するつもりだ、第21課)」「-을게요(～します、第21課)」「-을까요(～しましょうか、第19課)」「-을 수 있다(～することができる、第21課)」などです。ただし、この場合は、発音上、ㄹ語幹の終声「-ㄹ」が「-을」に連音して[ㄹ]となり、連音した「ㄹ」は脱落する規則が適用されます。(→第12課「ㄹ語幹」)

살다(住む)なら、살-을(～)> 사를(～)> 살(～)となります。

살-을 것이다>살 것이다(住むつもりだ)

살-을게요>살게요(住みます)

살-을까요>살까요(住みましょうか)

살-을 수 있다>살 수 있다(住める)

また、ㄹ語幹は、いままでにも動詞の現在形で「-ㄹ」が落ちたり、あるいは詠嘆形「-네요」の前でも「-ㄹ」が落ちたりしましたが、これも規則的なことでㄹ語幹はㄹの前では終声「-ㄹ」が脱落します。

살-ㄹ다>산다(住む、住んでいる)

살-네요>사네요(住んでいますね)

살-는>사는(住んでいる、連体形(→第20課「現在連体形」))

* 살-ㅁ니다>삽니다(住みます、住んでいます)

これは、本来は「살-읍니다>사릅니다>삽니다」の変遷です。

ちなみに、この「語幹-읍니다」丁寧形は方言の言い方です。

なお、ㄹ語幹は、ㄹ以外の子音語尾や어語尾に付くときは変化は起きません。

きる, 제21과) '등이 그런데, 이 경우에는 ㄹ어간의 종성 ㄹ이 '-을'에 연음해 [를]로 발음되는데 연음한 [르]는 탈락한다는 르탈락 규칙(→제12과)이 적용된다. 살다(住む)인 경우, '살-을~>사[를]~([르]탈락)>사-ㄹ>살~'로 된다.

살-을 것이다>살 것이다 (住むつもりだ)

살-을게요>살게요 (住みます)

살-을까요>살까요 (住みましょうか)

살-을 수 있다>살 수 있다 (住める)

한편, ㄹ어간은 동사현재형으로 될 때나 또는 감탄형 '네요' 앞에서도 ㄹ이 탈락하고는 했는데, 이도 규칙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으로 ㄹ어간은 ㄴ앞에서는 종성 ㄹ이 탈락한다.

살-ㄴ다>산다 (住む, 住んでいる) 살-네요>사네요 (住んでいますね)

살-는>사는 (住んでいる, 연체형)

* 살-ㄹ니다>삽니다 (住みます, 住んでいます)

이는 본래는 살-읍니다>사[를]니다>사-ㄹ니다>삽니다 의 변천이다.

참고로 '語幹-읍니다'는 방언에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ㄹ어간은 ㄴ이외의 자음어미나 어어미에 연결될 경우에는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편집상 레이아웃트에 일부 수정을 가했다.)

3. 음운탈락 현상의 규칙화

3에서는 2에서 본 지금까지의 '음운탈락 현상에 관한 한일간의 제설'을 바탕으로 현대 한국어에서 ㄹ어간이 활용할 때 일어나는 음운탈락 현상을 규칙적으로 정립하고자 한다. 고찰 대상은 인공적으로 제정한 표준어 외에도 서울 및 경기 지역에서 두루 쓰이는 표현도 일부 대상으로 하였다.

음운탈락의 현상을 음운론에 입각한 고찰을 통해 논리적인 '음운탈락 현상의 규칙화'를 정립하고자 했으며, 또한 고어풍의 표현에 있어서의 음운탈락은 현대 한국어에서 거의 쓰여지고 있지 않으므로 본고에서는 제외하기로 했다.

(1) ㄹ어간은 ㄴ어미를 제외한 자음어미 앞에서는 기본적으로 탈락하지 않는다.
(탈락하는 일부 예외적인 말이 있는데 이는 ‘2-1-2 한글 맞춤법(1988) 제18항 해설 [붙임]’을 참조하기 바란다.)

ㄹ어간은 ㄴ앞에서 어간말음 ㄹ이 탈락한다.

예 : -나, -냐, -니, -네, -느니, -는, -는/ㄴ다 등
 놀다→노나, 노냐, 노니, 노네, 노느니, 노는, 논다
 멀다→머나, 머냐, 머니, 머네

필자는 본고에서 상기 예중 동사 현재형어미 ‘-는/ㄴ다’의 경우, 자음어간에 오는 ‘-는다’가 ㄹ어간에도 오는 것으로 종래의 견해를 달리하기로 했다. 그 이유는 ‘놀다’를 예로들면, ‘놀-는다>노-는다>노-ㄴ다>논다’가 ‘놀-ㄴ다>노-ㄴ다>논다’보다 음운론적으로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먼저 ‘놀-는다>노-는다’로 된 것은 ㄹ탈락으로 인함이며, ㄹ탈락이 일어나는 이유는 ㄹ은 유음으로 탈락하기 쉬운 특징을 가지고 있는 점과, 또 한 이유는 탈락하지 않으면 ‘놀-는다’는 유음화로 인해 [놀른다]로 발음돼 놀다의 현재형으로서의 의미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이라 하겠다.

그리고, ‘노-는다>노-ㄴ다’는 ‘느’이 ㄴ으로 축약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조사에서도 같은 현상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나-는>나-ㄴ>난, 남자-는>남자-ㄴ>남잔, 여기-는>여기-ㄴ>여긴’ 처럼 조사 ‘느’이 모음어간 뒤에서 ㄴ으로 축약되는 것과 같은 음운현상이라 하겠다.

필자의 종래의 견해 ‘놀-ㄴ다>노-ㄴ다>논다’는 자음어간에 음절 ‘-ㄴ’이 오는 경우가 되는데 이는 한국어 음운론에서 일어나기 어려운 현상이라는 점을 인정하며 여기서 견해를 달리한다.

(2) 으어미의 ‘으’ 다음에 오는 초성이 ㄹ/ㄹ인 경우에는 ‘으’가 탈락한다.

예 : -으러, -으려고, -으리라, -으라고, -으며, -으면, -으면서 등
 놀다→놀러, 놀려고, 놀리라, 놀라고, 놀며, 놀면, 놀면서
 멀다→멀며, 멀면, 멀면서

ㄹ어간에 으-ㄹ(초성)이 오면 ‘ㄹ-으-ㄹ’이 되는데, ‘으’는 입을 아주 적게 벌려

발음하는 비원순 협모음으로 탈락하기 쉬운 모음이라는 특징이 있다. 으가 탈락하면 ‘ㄹ-ㄹ’이 되는데 이는 동음이므로 음절간의 발음이 수월해진다는 장점이 있다. 즉 음절간의 발음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 ‘으’가 탈락되는 경제적인 발음법이라 하겠다.

참고로 용언이 아닌 조사에 있어서도 방향·수단을 나타내는 ‘으로’는 ‘서울-로, 전철-로, 메일-로’로 으가 탈락되어 ‘ㄹ-ㄹ’로 발음되는데 이와 위의 으탈락은 음운론적으로는 상통하다고 하겠다.

그리고 ㄹ어간에 으-ㅁ(초성)이 오면 ‘ㄹ-으-ㅁ’이 되는데, 으가 탈락하면 ‘ㄹ-ㅁ’이 된다. ㄹ과 비음 ㅁ은 음운적으로는 유성음이라는 공통점이 있는 친화성 발음이므로 으가 탈락되어도 발음하기 어렵지 않다. 이도 발음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 으가 탈락되는 것이라 하겠다. 물론 으탈락으로 인해 발음이 짧아지므로 경제적인 발음법이 되는 것이라 하겠다.

(3) 으어미의 ‘으’ 다음에 오는 초성이 ㄹ/ㅁ 이외의 자음인 경우에는 ‘ㄹ’가 탈락한다. 이 ‘ㄹ’는 ㄹ어간의 종성 ㄹ이 으어미에 연음되어 발음되는 [ㄹ]인 것이다.

예 : -으세요, -으시다, -으니까 등
 놀다→노세요, 노시다, 노니까
 멀다→머세요, 머시다, 머니까

그리고 으어미의 ‘으’ 다음에 종성 ㄹ/ㅁ/ㄴ/ㅂ이 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 때도 ㅁ을 제외하고는 모두 ‘ㄹ’가 탈락한다.

예 : -을, -을까, -을텐데, -은, -은지, -은데, -읍시다, -읍니다 등
 놀다→놀, 놀까, 놀텐데, 논, 논지, 놀시다, 놀니다
 멀다→멀, 멀까, 멀텐데, 먼, 먼데, 멀니다

그러나 종성 ㅁ이 오는 경우에는 명사형 전성어미인 ‘-음’이 있는데 이 때에는 준말 이외에는 탈락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예 : 울음, 갈음, 불음, 얼음, 줄음, 줄음, 놀음

준말 예 : 살-음>삶, 알-음>앎 (표기상으로는 으탈락, 발음상으로는 르탈락)

[르]가 탈락하는 음운론적 이유는 르이 탈락하기 쉬운 유음이라는 점과 더불어 ‘ㅡ’모음도 탈락하기 쉬운 비원순 협모음이라는 점이다. 이 두 가지 음이 합친 음 [르]가 탈락하는 것은 음운론적으로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하겠다. 위의 어어미 들의 [르]탈락 과정을 필자는 아래와 같이 생각하고 있다.

놀-으세요>노[르]세요>노세요
놀-을 때>노[르]르 때>놀 때
놀-을까>노[르]르까>놀까
놀-읍시다>노[르]르시다>놀시다
멀-은 나라>머[르]르 나라

위 활용에서 [르]가 탈락했다는 점에 확신을 가지게 해 주는 실용예 일부를 아래에 열거해 보겠다.

집에서 컴퓨터하면서 놀으세요(>노세요).
어릴 적 들판에서 뛰어 놀을 때(>놀 때) 무지개를 보곤 했는데...
이번 주말엔 한강변에 가서 놀을까(>놀까) 합니다.
오늘 밤은 까짓거 나하고 놀읍시다(>놀시다).
일본 따라가려면 한참 멀은 나라(>먼 나라) 한국이 일본 가전을...

표준어에서는 ()속의 표현이 맞는 것으로 되어 있고 표준어 사용을 권장하고 있지만, 하선 부분의 표현은 실생활에서 곳곳이 살아 있는 말 들이며, 감정 표현이 들어가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속의 표준어보다도 더 사용되고 있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르어간은 어어미 앞에서는 예외적인 말(말아라>마라, ‘라’탈락)을 제외하고는 탈락하지 않는다.

본고에서는 ‘2 음운탈락 현상에 관한 한일간의 제설’에서 언급된 ‘-세, -오’는

예로 들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두 표현 다 고풍스러운 어미로 현대어에서는 일부 노년층을 제외하고는 사용하지 않으므로 신지 않았다. 그리고 -오는 정확히 말하면 ‘-으오’이므로 으어미에 속하는데 이는 르탈락 현상의 하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참고문헌

- 『한글 맞춤법 통일안』 朝鮮語學會, 1933 년
 李殷正 『개정한 한글 맞춤법·표준어 해설』 大提閣, 1988 년
 李升九 『우리말 우리글 바로쓰기 백과 正書法資料』 大韓教科書株式會社, 1990 년
 任瑚彬·洪璟杓·張淑仁 『外国人のための韓国語文法』 延世大学校出版部, 1989년
 임호빈·홍경표·장숙인 『<신개정>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 연세대학교 출판부, 1997년
 한국어문화연수부 『한국어1 附録：文法日本語解説集』 고대민족문화연구소, 1991년
 김중섭·조현용·방성원·홍윤기·호정은 『한국어초급Ⅱ』 경희대학교 출판국, 2001 년
 石原六三·青山秀夫 『朝鮮語四週間』 大学書林, 1963 년
 柳尚熙·吳英元 『やさしいコリア語入門』 評論社, 1985 년
 塚本勲·奥田一廣 『新しい朝鮮語』 白帝社, 1989 년
 野間秀樹 『至福の朝鮮語 (改訂新版)』 朝日出版社, 2002 년
 生越直樹·根本理恵 『韓国語入門Ⅱ (’06)』 放送大学教育振興会, 2006 년
 梅田博之 『NHK ハングル入門』 日本放送出版協会, 1985 년
 梅田博之·金東俊 『スタンダードハングル講座1 入門・会話』 大修館書店, 1989 년
 梅田博之 『スタンダードハングル講座2 文法・語彙』 大修館書店, 1991 년
 梅田博之 『NHK 新版ハングル入門』 日本放送出版協会, 2006 년
 姜奉植 『韓国語会話入門』 東方書店, 1995 년
 姜奉植 『日本人のための韓国語入門1』 時事日本語社·国書刊行会, 1996 년
 姜奉植 『なるほど! 韓国語 -文法と会話編-』 研究社, 2009 년

* 상기 논문은 “The International Academic Conference of the Fifth Asian Korean Cultural Education Research Society(2012.10.26-28)”에서 발표한 논문에 일부 첨삭을 가했다.

(岩手県立大学 共通教育センター 教授)

韓国語教育研究 (第 2 号)

2012 年 9 月 15 日 発行

発行者 姜 奉植
発行所 日本韓国語教育学会
〒161-853 東京都新宿区中落合 4-31-1
目白大学外国語学部韓国語学科
編集者 『韓国語教育研究』編集委員会
文慶喆 ・ 柳朱燕 ・ 宋貞熹 ・ 金鉉哲 ・ 金殷模
印刷所 (株)ENTERPIA PRODUCTION